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15째주 (4월 11일)

정교회 주보



성 토마이다 순교자

사순절 제 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

성 안티파스 주교 순교자

제 3조, 조과복음 1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 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 찬양송 / 비고정 축일 성가집 46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 히브리 6:13~20 / 233, 봉독서 454
- 복음경 : 마르코 9:17~31 / 139, B 97
- 성모송(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토마이다 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4월14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토마이다 순교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살았으며 경건함과 영적인 면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자선활동과 자비를 베푸는 데 동참하였고,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하였습니다.

성녀에게는 모든 면에서 축복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도 진실되고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를 악의 원천인 악마가 시기하여, 비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일을 하러 가고 토마이다가 집에 혼자 있었을 때, 남편의 아버지가 악마에 사로잡혀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토마이다에게 비윤리적인 폭력을 행했습니다.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살아왔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성녀는

굳건함과 솔직함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성녀는 이 행위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욕에 눈이 먼 그는 성녀를 죽인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성녀를 칼로 찔렀고 성녀는 순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이 짧은 삶의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삶의 승리였습니다. 아토스 산의 성 니코데모스는 성녀에 대해 “그녀는 지혜로 순교의 왕관을 받았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다니엘 수도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몇 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도시로 내려가서 성녀의 유해를 받아 자신들의 스키티로 데려가 묻었습니다. 성녀의 무덤은 육체적 정염의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통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5세기)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서의 일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오 복음(17:20)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 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에 굴복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시련이 닥치면 믿음에 대한 나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기보다는 채워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해 실망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 하느님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에 입문하면 바로 시련도 어려움도 모두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충만함이 넘치는 삶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

움이나 시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악이 존재하고, 악마는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가 진짜를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저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생명을 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씀 한마디로 악령 들린 아이를 깨끗이 치유하심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마르코9:23)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악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제한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며, 그럴 때 하느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은총의 선물이자 기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신앙 생활이 곧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어둠의 권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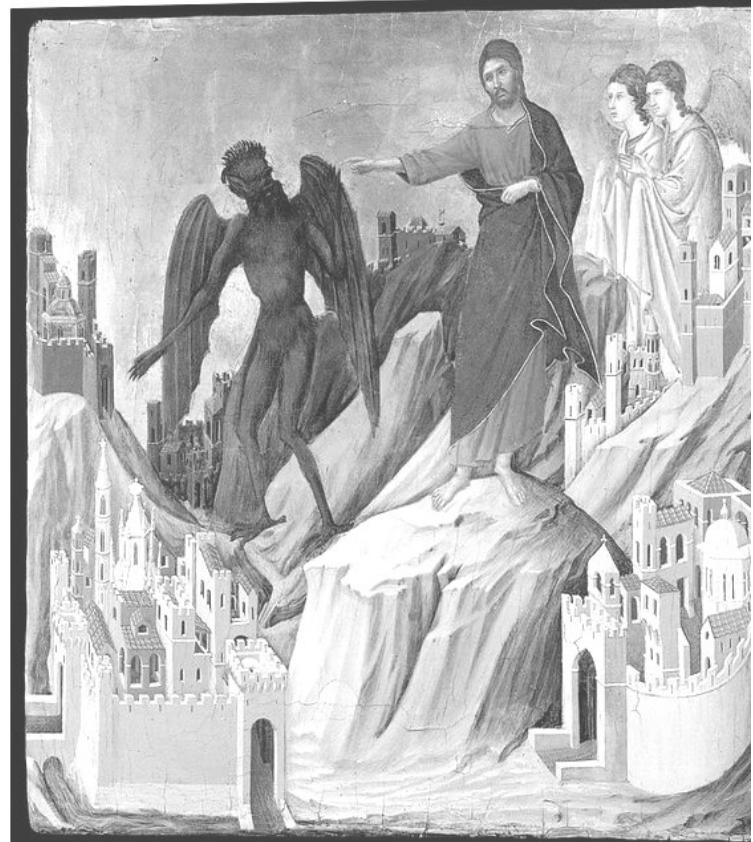


(트리폰 수도원장: 미국 워싱턴 주 바손[Vashon] 섬에 있는 구세주 수도원 원장)

우리의 적은 군대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것, 훨씬 더 파괴적인 태풍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가 쇠퇴하는 것,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정치적 봉기가 일어나는 것 등을 세상 끝날의 징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과 연결해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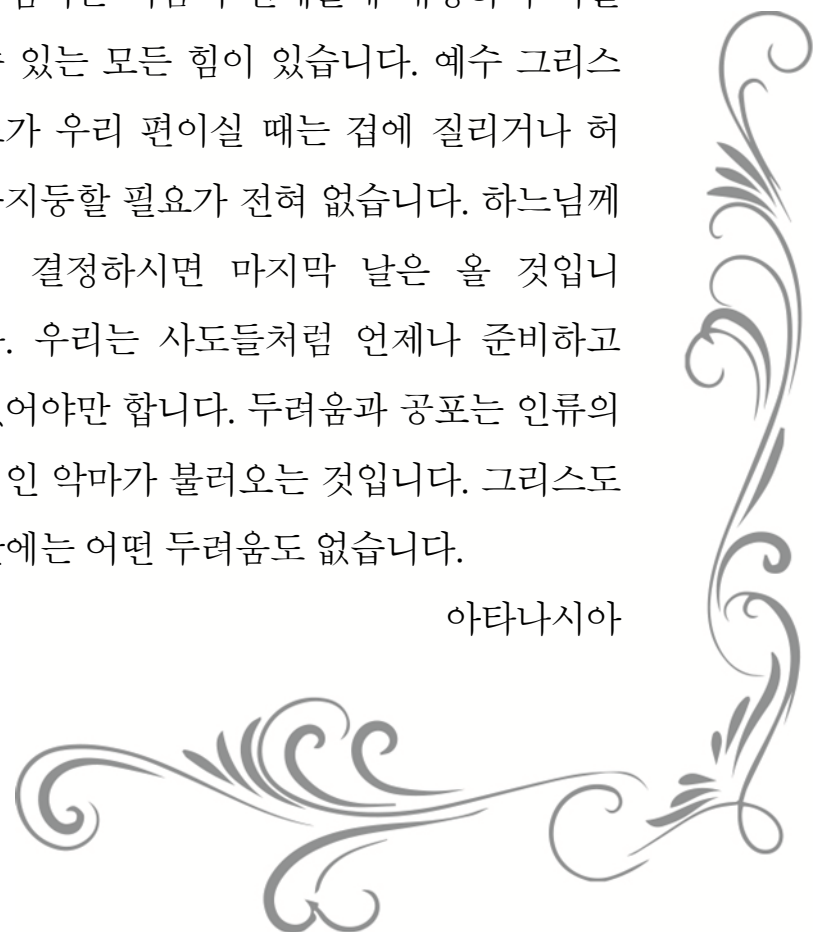
하지만 진실은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만이 마지막 날과 시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에 있는 적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싸움에 필요한 무기가 군대나, 총이나, 탱크, 미사일 등이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에게 대항하는 전투는 교회의 예배와 기도, 금식, 영적인 준비와 회개,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것 등에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은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사



기를 떨어뜨리려 하고 우리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악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들이던비는 어둠의 권세들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실 때는 겁에 질리거나 허둥지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결정하시면 마지막 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인류의 적인 악마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코로나19에 대한 밤 10시 기도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4차 대유행이 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아직 완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더욱 자유롭게 성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매일 밤 10시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신자분들은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건강에 유의해주십시오.

■ 대사순절 기간 예배 유튜브 생중계

코로나19로 인해 대사순절 주중 예배에

서 화, 목요일 오후 5시 석후대과, 수요일 오후 5시 대까논, 금요일 오후 6시 성모기립찬양을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와 대까논 예배 시간 안내

이 번 주 중에는 수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5시에 대까논 예배가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꽃 봉헌 신청

부활절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예식



■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4월 14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5시 - 대까논

■ 4월 16일(금) 오후 6시 - 성모기립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